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주요 부문별 중국 경제 점검과 향후 전망

목 차

■ 주요 부문별 중국 경제 점검과 향후 전망

Executive Summary	i
1. 개요	1
2. 부문별 중국 경제 점검	2
3. 시사점	9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중국경제팀 : 한 재 진 연 구 위 원 (2072-6225, hzz72@hri.co.kr)
 : 천 용 찬 선 임 연 구 원 (2072-6274, junius73@hri.co.kr)

Executive Summary

□ 주요 부문별 중국 경제 점검과 향후 전망

■ 개 요

최근 중국 경제는 3분기 연속 6.7% 성장이 이어지면서 외수 경기는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경기가 소폭 개선되면서 올해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 6.5~7.0% 달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국유 대형 및 중소 민간 제조업 경기 지수인 PMI도 모두 50p를 상회하면서 향후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중국 경제를 부문별로 점검해 보고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부문별 중국 경제 점검과 전망

중국 경제를 내수 및 외수 경기, 부동산 경기, 유동성, 외환시장 등 5대 부문으로 구분하여 점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수 경기는 투자는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소비는 점차 회복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016년 1~9월 누적기준으로 8.2%를 기록하는 등 2009년 30%대 증가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전체 고정자산 투자의 60%를 차지하는 민간투자 증가율도 동기준 2.5%로 동년 1~8월 2.1%보다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반면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6년 1~9월 누적기준으로 10.4%를 기록했으며, 9월만 보더라도 10.7% 증가하여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비는 소득수준 향상 뿐 아니라, 서비스 산업 주도의 성장이 이어지면서 향후 내수 성장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 도시 가계의 소득 수준별 비중을 볼 때, 2011년 4만 위안 이상 도시 가계 비중이 2011년 약 75%를 차지하고 있으며, GDP 대비 임금 비중도 2011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둘째, 외수 경기는 지속 둔화되면서 대외 무역의존성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은 2016년 1~9월 누적기준으로 각각 -7.5%, -8.2%를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이 예상되고 있다. 다만, 무역수지는 2016년 9월까지 31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불황형 흑자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의존도도 2006년 63.7%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 현재 35.3%로 급감하는 등 경제의 외수에 대한 의존성이 줄어들고 있다. **셋째, 부동산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과열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2016년 8월말 기준, 북경 등 1선 도시의 신규주택가격 증가율은 28.2%를 기록하는 등 지난 2015년 8월부터 13개월 연속 두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대출에 대한 중국정부의 정책적 규제 등으로 향후 주택가격 급등 양상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신규 부동

산 대출액은 2016년 6월 현재 약 3조 위안으로 2015년의 약 82% 수준에 육박하고 있으며,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동시점 60.2%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향후 중국 정부의 과열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넷째, 최근 금리 인하 등 완화된 금융통화 정책 조치로 사회융자총액은 늘어나고 있으나, 실물경제 부문에서의 유동성 확대가 지연되는 등 경기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있다.** 중국의 예대 기준금리는 2016년 9월 현재 각각 1.50%, 4.35%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 전체의 융자규모를 나타내는 지표인 사회융자총액은 급증하고 있으나, 2015년 10월부터 협의통화(M1) 증가율이 광의통화(M2)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등 기업의 투자 의지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외환시장은 최근 외환보유액 감소 뿐 아니라, 단기외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분간 자본 유출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우려는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6년 6월 현재 3.21조 달러로 아직은 IMF가 보는 적정 수준 1.53조 달러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나,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또, 단기외채도 동시점 전체 외환보유액의 약 27%인 8,673억 달러로 2015년보다 비중은 감소했으나, 여전히 확대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6년 1~9월 누적으로 약 5,400억 달러에 달하는 자본 유출 규모가 지난해 약 1조 1,000억 달러 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최근 달러 대비 위안 환율의 평가절하가 지속되면서 향후 자본 유출 가능성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중국 경제는 외수 경기 약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주도의 내수 경기가 소폭 회복되고 있지만 유동성 확대를 통한 경기 선순환 구조 개선에 실패할 경우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도 상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시사점

최근 중국 경제가 수출과 투자보다는 소비 주도의 성장이 확대되면서 산업재편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경제 전반의 질적 전환에 맞는 對 중국 교역 패턴의 점진적인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중국의 수출 경기 회복에 의존하기 보다는 중국 내수 확대를 겨냥한 對 중국 수출 패러다임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소비 유형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중국 내수시장의 트렌드 변화가 가속되는 만큼, 중국 진출 방안도 새로운 수요 및 제도적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향후 일대일로 등 중국의 인프라 투자 사업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우리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발굴과 선별 노력을 해야 한다. **넷째,**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따른 돌발 리스크에도 대비해 상시적 모니터링 강화에도 노력해야 한다.

1. 개요

○ 최근 중국 경제가 외수경기는 악화가 지속되고 있으나, 내수 경기가 소폭 개선되면서 올해 중국 정부의 목표치 6.5~7.0% 달성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내수가 소폭 개선되는 가운데, 3분기 연속 6.7% 기록

- 2016년 3/4분기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16년 들어 3분기 연속 6.7%를 기록하며 올해 6.5~7.0% 달성 가능성이 확대
- 한편, IMF('16.10) 전망치에 따르면, 2017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6.2%를 예상하고 있으며, OECD('16.9)와 ADB('16.9)도 각각 6.2%, 6.4%로 6.5% 이하로 전망

- 더욱이 경기 선행지수는 국유 대형 및 중소형 민간 제조업 경기가 동반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며 향후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짐

- 대형 국유기업 제조업 경기를 나타내는 관방 PMI는 2016년 9월 50.4p를 기록하며 2개월 연속 50p를 상회
- 더욱이 중소기업의 제조업 경기를 대표하는 차이신 제조업 PMI도 동시점 50.1p로 올해 7월부터 3개월 연속 50p를 상회하는 등 경기 회복 기대가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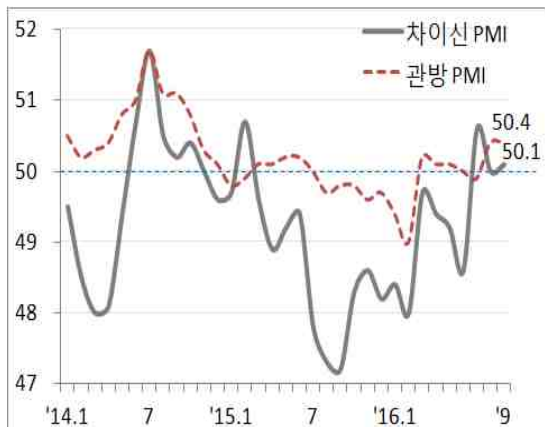
○ 이에 최근 중국 경제를 부문별로 살펴보고 향후 전망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중국의 GDP 기여도 현황 >
(%p, %)



자료 : CEIC.

< 중국의 제조업 경기 동향 >
(p)



자료 : CEIC, 차이신.

2. 부문별 중국 경제 점검

① 내수 경기 : 소비가 내수 성장의 핵심 키워드로 전환

○ 중국의 내수 경기는 민간 투자 부문의 악화로 투자는 위축되고 있으나, 소비는 완만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음

- 투자는 민간 투자 부문 위축에 따른 둔화 양상이 지속되면서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이 약화

-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016년 1~9월 누적기준으로 8.2%를 기록, 2009년 30%대 이후 지속 하락 추세를 보임
- 특히, 최근에는 민간투자 증가율이 2016년 1~9월 누적 기준으로 2.5%를 기록, 동년 1~8월 2.1%보다는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약세가 지속
- 한편, 건설 및 설비투자도 동기준 각각 9.7%, 1.2%로 한자리수 증가에 그침

- 반면, 온라인 상거래 등 새로운 소비 유형 증가로 소비는 점차 회복되는 양상으로 전환되고 있음

- 소매판매 증가율은 2016년 1~9월 누적기준으로 10.4%를 기록했으며, 9월만 보면 10.7% 증가하며,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냄
- 특히, 전체 소매판매의 14.5%를 차지하는 온라인 상거래(网上零售)가 동기준 26.1% 증가하는 등 소비 부문의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

< 중국의 고정자산투자 증가율 추이 >
(증가율,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주 : 2016년은 1~9월 누적 증가율 기준.

< 중국의 소매판매 증가율 추이 >
(증가율, %)



자료 : 중국국가통계국.
주 1) 2016년은 1~9월 누적 증가율 기준.
2) 자동차 판매는 '15년 기준, 전체 규모이상의 업종별 소매판매의 약 28% 차지.

○ 특히, 소비는 2011년부터 소득 수준이 향상뿐 아니라, 서비스 산업 주도의 성장이 이어지면서 향후 내수 성장의 핵심 역할이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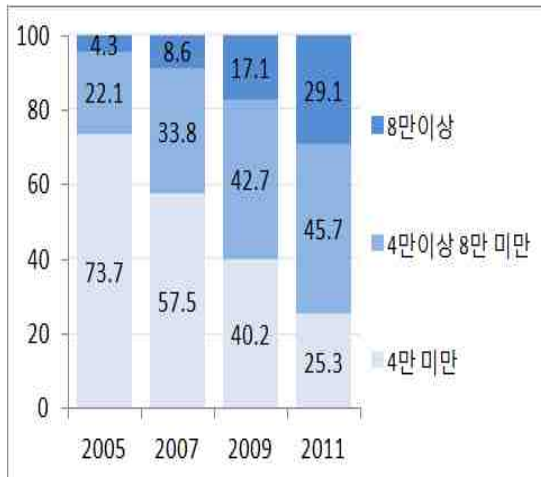
- 가계의 소득 수준이 지속 상승

- 중국 도시 가계의 소득 수준별 분포 비중을 볼 때, 2005년 4만 위안 미만이 전체 도시 가계 소득의 약 74% 수준에 이룸
- 하지만, 2011년 기준, 동기준 25.3%로 감소했으며, 4만 위안 이상 도시 가계 비중이 전체의 약 75%를 차지하는 등 전반적으로 가계의 소득 수준이 크게 향상

- 더욱이 2011년 이후 GDP 대비 임금 비중도 빠르게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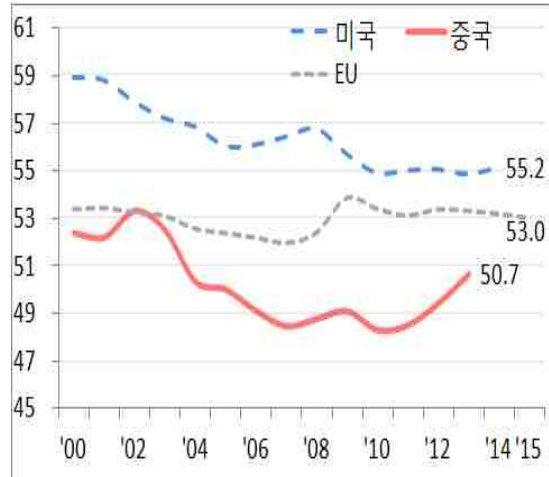
- 중국의 GDP 대비 임금 비중은 2000~2010년까지 우하향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11년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또, 2015년 GDP 대비 서비스업 비중이 50.2%로 2012년 제조업 비중을 추월하는 등 서비스업의 확대가 가속되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정책¹⁾도 제시

< 중국 도시 가계의 소득 수준별 분포 >
(비중, %)



자료 : OECD 자료로 현경연 재구성.
주 : 연간소득이 4만 위안 미만, 4-8만 위안, 8만 위안 이상으로 구분.

< 중국의 GDP 대비 임금 비중 >
(비중, %)



자료 : OECD 자료로 현경연 재구성.
주 : 임금(Employee Compensation)데이터는 현금뿐 아니라 직원을 위한 복지 지원금을 포함.

1) 중국 정부는 2016년 4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세금 면제는 폐기했지만 동년 10월부터 내수 화장품 등에 책정된 30%의 소비세를 폐지했고, 동월 그동안 거론되었던 농민공에게 2020년까지 도시호구 부여를 발표 하는 등 내수 확대 관련 정책을 구체화 하고 있음.

② 외수 경기 : 둔화세 지속되면서 무역의존도도 동반 감소

○ 대외 경기 약화 등에 따라 외수 경기가 지속 둔화되고 있을 뿐 아니라, 무역의존도도 빠르게 감소하는 등 경제의 외수 부문 의존도가 향후 지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외수 경기 둔화 속 불황형 흑자 양상이 지속

-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2016년 1~9월 누적으로도 -7.5%를 기록하는 등 2년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이 예상
- 수입 증가율도 동기간 -8.2%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무역수지 흑자는 2016년 9월까지 31개월 연속 흑자를 나타내는 등 불황형 흑자가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따라, 무역의존도도 2011년 이후 감소세

- 중국의 무역의존도는 2006년 63.7%로 정점을 찍은 후 2015년 현재 35.3%로 28.4%p 급감
- 이는 2011년 12차 5개년 플랜에서 내수 주도의 성장을 표방한 후 무역의존 정도 감소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판단됨
- 한편, GDP 대비 경상수지 비중은 2015년 현재 약 3.0%로 2011년 이후 3% 미만 수준이 지속

< 중국의 수출입 증가율 현황 >

(억 달러) (증가율, %)



자료 : 중국해관총서.

< 중국의 GDP 대비 수출입 및 경상수지 비중 >

(비중, %)



자료 : CEIC, IMF 자료로 현경연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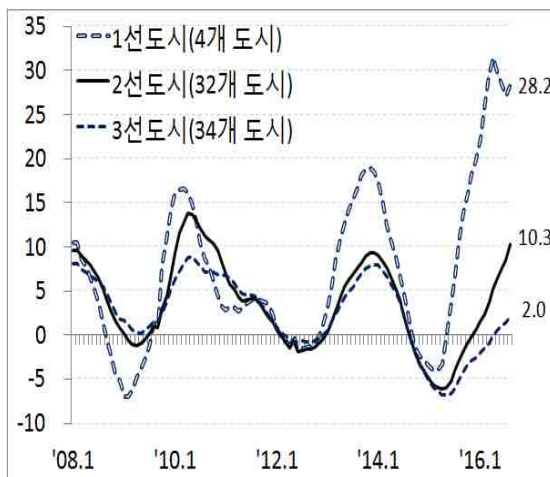
주 : 무역의존도는 GDP 대비 수출입총액 비중을 의미함.

③ 부동산 경기 : 과열 양상 지속으로 정책 기조가 완화에서 강화로 선회

○ 대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부동산 대출에 대한 제약이 강화되면서 향후 부동산 가격 급증이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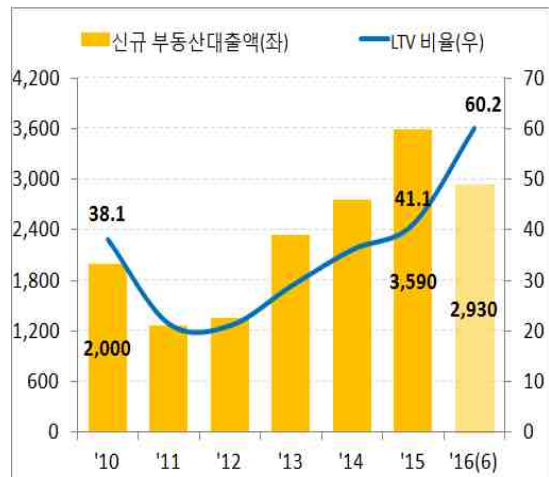
- 지난 2015년 8월부터 중국의 1선 도시를 중심으로 신규주택가격 증가율이 빠르게 확대
 - 2016년 8월말 기준 중국의 1선 도시 신규주택가격 증가율은 28.2%를 기록하는 등 지난 2015년 8월부터 13개월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대도시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과열에 대한 우려가 증대
 - 2016년 8월말 기준 2선 도시 10.3%, 3선 도시 2.0%를 기록
- 다만, 부동산 대출에 대한 정책적 제약 등으로 향후 주택 가격 급등 양상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신규 부동산 대출액은 2016년 6월말 현재 2조 9,300억 위안으로 2015년 3조 5,900억 위안의 약 82%에 육박하는 등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2016년 2월부터 LTV(Loan To Value,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80%로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6월 현재 전체 LTV 비율은 60.2% 수준
 - 한편,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 규제로 주택가격 급등 양상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예상

< 중국 도시규모별 신규주택가격 증가율 >
(증가율, %)



자료 : Bloomberg.

< 중국 부동산대출 규모 >
(십억 위안) (비율, %)



자료 : 중국인민은행, 중국국가통계국 자료로 환경연 재구성.

- 주 1) LTV = 신규주택담보대출/부동산판매액.
- 2) 2016년 2월부터 중국의 법정 LTV 상한선은 80%로 조정 (첫구매 주택 기준).

④ 유동성 : 완화적 금융통화 정책 효과 미약으로 경기 선순환 고리 약화

○ 최근 금리 인하 등 완화된 금융통화 정책 조치로 사회융자총액은 급증하고 있으나, 실물경제 부문에서의 유동성 확대가 지연되는 등 경기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있음

- 예·대 금리 수준이 2000년 이후 최저치 수준

- 중국의 예·대 기준금리는 2016년 9월 현재 각각 1.50%, 4.35%로 지난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지급준비율도 대형금융기관의 경우 동시점 16.5%로 지난 2011년 6월 21.0%로 상향 조정된 후 가장 낮은 수준이 지속

- 이에 따라, 사회융자총액²⁾이 급증하고 있으나, 투자 등 실물경제 부문에서의 유동성 확대는 여전히 지연되면서 경기 선순환 연결 고리가 약화

- 은행 대출, 채권 발행 등 시장의 융자 총액을 나타내는 사회융자총액(社會融資總量)이 2016년 9월 기준 잔액 기준 약 152조 위안으로 확대 지속
- 다만, 2015년 10월부터 협의통화(M1) 증가율이 광의통화(M2)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등 기업의 투자 의지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국의 기준율 및 금리 현황 >



자료 : 중국인민은행.
주 : 지급준비율은 대형 금융기관 기준.

< 중국의 사회융자총액 현황 >



자료 : 중국인민은행.
주 : 2016년은 9월까지 잔액 기준.

2) 사회융자총액이란 위안화 및 외화 대출 뿐 아니라 은행인수어음,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등을 포함한 중국의 대표적인 유동성 측정지표.

⑤ 외환시장 : 자본 유출 확대 우려 상존으로 불확실성 지속

○ 최근 외환보유액 감소뿐 아니라 단기외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당분간 자본 유출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우려는 이어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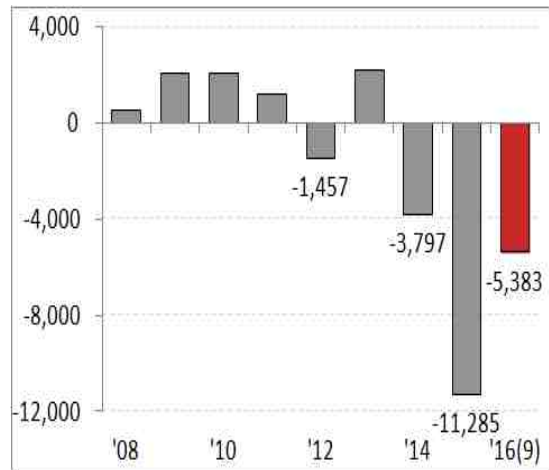
- 외환보유액이 여전히 감소하고 있으며, 단기외채 부담도 지속
 - 중국의 외환보유액 규모는 2016년 6월 현재 3.21조 달러로 아직은 적정 수준³⁾을 상회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2014년부터 감소세는 지속
 - 단기외채도 2016년 6월 현재 전체 외환보유고의 약 27%인 8,673억 달러로 2015년보다는 비중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확대 가능성이 상존
- 이에 따라, 자본 유출 확대에 따른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우려는 지속
 - 자본 유출 규모를 잔차법으로 계산하면, 2016년 1~9월 누적기준으로 약 5,400억 달러로 올해 연간 규모가 지난해보다는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다만, 위안화 환율이 2016년 9월 현재 6.6778위안/달러로 2014년 12월 보다 약 9% 평가절하되고 있어 향후 자본 유출 지속 가능성이 상존

< 중국의 중·장단기 외채 비중 추이 >
(조 달러) (비중, %)



자료 : 중국인민은행, 중국외환관리국.
주 1) 2016년은 6월말 기준.
2) 단기 및 중장기 외채 비중은 외환보유고 대비 비중을 의미.

< 중국의 자본유출 규모 현황 >
(억 달러)



자료 : 중국인민은행, 중국해관총서, 중국상무부 자료로 현경원 추정.
주 1) 자본유출규모는 잔차법(외환보유액 증분-무역흑자-FDI+ODI) 기준.
2) 2016년은 9월까지 누적 기준.

3) 중국 외환보유고의 적정 수준은 IMF(2015)가 변동환율기준으로 단기외채x0.3+ 기타외채x0.1+ M2x0.05+ 수출총액x0.05 식으로 계산하면 1.53조 달러 수준이 적정하다고 판단됨.

⑥ 종합 평가 및 전망

- 중국 경제는 외수 부문은 약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 주도의 내수 경기가 소폭 회복되고 있지만 여전히 유동성 확대를 통한 경기의 선순환 구조 확립에 실패할 경우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음
- 투자 및 외수 경기 약화 등으로 경기의 빠른 회복은 제한적이나,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재편이 진행되면서 소비가 내수시장의 동력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또, 최근 대외 경기뿐 아니라, 공급과잉 산업 규제 등 구조개혁 여파로 외수 부문의 빠른 경기 회복 가능성은 낮음
- 다만, 유동성 확대 지연되는 상태에서 부동산 과열 양상이 더욱 확대될 경우 경기 선순환 고리 약화에 따른 버블 붕괴로 경기가 급랭할 가능성도 상존

< 부문별 중국 경제 평가와 전망 >

구분	평가	전망
① 내수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위축 지속 • 소비 점차 회복 - 온라인 상거래 등 신유형의 소비 증가 - 소득 향상, 농민공 도시호구 확대, 서비스 산업 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 주도의 성장이 지속될 전망 - 향후 세제, 서비스업 등 분야의 규제 완화 가속 전망 • 인터넷 플러스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 형태 출현이 기대
② 외수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경기 약화로 둔화세 지속 • 무역의존도 감소 양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과잉 산업 규제 지속으로 경기 회복은 당분간 지연될 전망 • 다만, 산업 구조가 질적 개선으로 고부가 품목의 수출경쟁력 확대가 예상
③ 부동산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도시 과열, 중소도시는 회복세 • 부동산 정책이 완화 →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 규제가 가시화될 경우, 향후 주택가격이 하락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④ 유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대 금리 인하, 기준율 인하 등 유동성 확대 조치 지속 • 사회융자총액 급증 초래 • 다만, 기업의 투자 의지 약화 지속으로 경기의 선순환 고리 약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동성 확대를 위해 정부지출 확대 등 확대 재정이 지속될 전망 • 각종 기업관련 규제 완화 기대 • 금리보다는 기준율 인하 소폭 단행 예상
⑤ 외환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환보유액 감소 지속, 단기외채 부담 상존 • 자본 유출 확대로 불확실성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율 평가절하 양상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이어질 전망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3. 시사점

- 최근 중국 경제가 수출과 투자보다는 소비 주도의 성장이 확대되면서 산업재편이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경제 전반의 질적 전환에 맞는 對 중국 교역 패턴의 점진적인 구조적 개선이 필요

첫째, 중국의 수출 경기 회복에 의존하기 보다는 중국 내수 확대를 겨냥한 對 중국 수출 패러다임 보완이 필요

- 최근 중국의 무역의존도가 지속 감소하고 있는 만큼, 향후 중국 내수 시장을 겨냥한 對 중국 수출 구조의 개선 노력이 필요
- 또한, 중국의 산업 고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고부가 제품의 중간재 수요는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므로, 고부가 및 고기술 위주의 중간재 개발을 통해 중국 제품에 대한 기술적 경쟁력을 지속 유지해야 함

둘째,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소비 유형이 빠르게 증가하는 등 중국 내수시장의 트렌드의 변화가 가속되는 만큼, 중국 진출 방안도 새로운 수요 및 제도적 변화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책을 강구

- 온라인 상거래 증가 등 서비스업의 성장이 가속되면서 향후에는 소비 유형이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플러스 전략을 통해 더욱 다양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對 중국 내수 시장 진출을 위한 탄력적인 전략 구상이 필요
- 아울러, 최근 중국의 對 한국 비관세 장벽이 식품, 화장품 등 소비재에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향후 품목 대상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품질 경쟁력 강화 노력도 병행

셋째, 향후 일대일로 등 중국의 인프라 투자 사업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우리가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발굴과 선별 노력도 모색

- 올해 중국은 AIIB 출범 및 위안화 SDR 편입뿐 아니라, 올해 시장경제지위 (MES) 인정 등 향후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을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를 조성하고 있음
- 일대일로 사업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해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 및 선별하여 기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해 한중 FTA 채널을 적극 활용해야 함

넷째, 중국 경제의 하방 리스크 확대에 따른 돌발 리스크에도 대비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 중국 경제가 경착륙은 아니지만, 부동산 버블 붕괴 우려, 부채 확대 등 하방 리스크가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므로 국내 경제로의 전이에 대비한 상시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
- 또한, 자본 유출이 지속될 경우, 중국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국내 외환 시장의 안정성 약화에 대비해 모니터링도 강화

한재진 연구위원 (2072-6225, hzz72@hri.co.kr)

천용찬 선임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부록] 최근 중국 내·외수 관련 정책 동향

구 분	주 요 내 용
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세금 추가부과, 일부 내수 소비제품 세금 폐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4월부터 해외직구상품에도 일반 수입제품처럼 관세, 증치세(공산품은 17% 정도), 소비세(화장품 등은 30% 정도)를 부과 • 기존의 일정금액 해외직구상품에 대한 세금면제 제도 폐지 • 반면, 2016년 10월부터 내수 화장품 등에 매기던 30%의 소비세를 폐지(고급화장품 소비세는 15%로 인하) - 기업 조세부담 경감 정책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5월부터 기업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증치세(부가가치세)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기업에 매기던 영업세는 매출액에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지만 제조업 기업에 매기던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원·부자 재구입비 등을 제외한 부가가치에 세율을 책정하기 때문에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통합하는 이번 조치는 서비스산업 기업의 세금부담 경감효과가 있음 • 2016년 5월부터 의료(국민건강)보험과 생육(출산)보험 통합을 추진 • 또한, 향후 2년간 기업이 부담하던 실업(고용)보험료와 양로(국민연금)보험료 기준을 인하
수 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기업 지원정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5월, 수출기업의 은행대출을 확대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확대 • 2016년 6월,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의 융합 발전 추진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 초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완화했다가 최근에는 부동산시장 억제 정책으로 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2월부터 중국은 첫 주택구매 시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상한선을 기존의 75%에서 80%로 완화, 주택 2채 이상 보유자에 대한 은행대출도 기존의 '대출금지' 규정에서 '은행재량'으로 변경 • 한편, 2016년 10월부터는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개발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강화 • 동시에, 베이징, 상하이, 선전, 톈진, 쑤저우 등 20여개 주요도시에서 주택 구입 시 초기납부금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외지인 구입을 제한하는 등 억제정책을 실시

자료 : 중국국무원, 해관총서 자료로 현대경제연구원 재정리.